

■여·야 쌀 직불금 국조 될 따질까?

책임 공방·세금 갈취 규명 초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국정조사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이끌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참여정부의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민주당은 부정수령 실태의 진상 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와 여권 인사 등의 책임을 파헤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이미경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고, 직폐 중 직폐"라고 말했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 감사원 감사경위·결과 은폐 의혹, 관련 제도·운영 개선대책 수립 등이 조사 대상이나, 그중 '은폐 의혹' 및 '직불금 제도 부실 설계'를 집중 다뤄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정은 원내대표는 "직불금 문제는 2005년 민주당 정부 시절에 만든 제도고, 그때 운영됐으며 직불금도 그때 나간 것"이라며 "왜 감사

여 참여정부 책임론에 야 '부실집행' 맞불

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잘못된 제도를 빨리 개선하지 않았는데 대해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동시에 민주당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정

부 책임론' 차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는데 집중한다는 각오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인수위가 직불금 관련

보고를 받고 3월에는 새 정부가 변동 직불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직불금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파악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인수위에서 직불금 문제를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갔는지, 3월 국무회의에서조차 이 문제가 보고됐는데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정 수령 실태조사 및 책임 추궁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부정 수령자가 여권 인사들에게 집중됐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자체 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 중에 부정 수령자가 없었다는 도덕적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권, 감사원 제도 개혁 논의 봇물

쌀 직불금 파문을 계기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대두되고 있는 안은 감사원 기능이나 소관을 국회로 이관해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의원은 23일 "감사원법상 주어진 직무 중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가져와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과 결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기능의 국회 이관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감사원이 국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거나 위원회 형태로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등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없애고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대한 청문회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법관이나 중앙선관위원처럼 감사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해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감찰이 수사업무에 있어선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충실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원의 독립성은 충분

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나라당 장운석 의원은 "평가 고치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충실하게 법치감사를 했다면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냈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 회의에서 "법이 정한 취지대로 독립된 지위에서 성역없는 감사를 해야 한다"며 다만 "몇몇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의해 감사원 전체가 지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靑 감사 요청 비판은 ‘억지논리’”

盧 전대통령, 쌀 직불금 사태 현 정부 원색적 비판

최근 쌀 직불금 사태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정국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를 원색적인 어조로 비판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2.0' 홈페이지에 댓글 형태로 올린 '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란 제목의 글에서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지난해 감사원에 쌀 직불금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감사 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

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비위를 감사하는 사정 업무에 관한 한, 철저한 독립이 필요하나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게 독립성의 훼손이라 하고 하는 것은 유치한 형식논리"라며 "직불금 소송돌이에 휩쓸려 정책감사의 작용을 없애버린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도 앞으로 많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그는 특히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쫓발을 만들더니 마침내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고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권력의 칼이 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치권력 스스로의 절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남 봉하마을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쌀직불금 감사 은폐 및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 "한마디로 생트집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국정조사도 있고 하니 적절한 과정을 통해 자료를 갖고 증명해 드리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식반응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감사원, ‘靑 수시보고 활성화’ 인수위 보고”

박영선 의원 주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예상

감사원이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통령에 대한 감사활동 수시 보고를 활성화하고 새 정부 공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문건을 열람한 뒤 뒷부분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시 보고 활성화'라는 항목을 통해 "주요 감사계획 및 감사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대통령께 수시보고 하겠다"며 '수시보고의 발전방향'으로 "5년 임기에 방대한 공약들을 신속하게 추

진하기 위해서는 수시보고를 활성화해 감사원의 국정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새 정부 주요시책과 공약을 핵심 모니터링 과제로 선정, 집중 모니터링해 모니터링 및 관찰과 나타난 문제점, 원인과 개선 대안을 대통령께 수시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공약사항별로 1~3명의 모니터링 담당자를 구성, 팀별로 공약이행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이행부진 과제에 대해선 실지 감사를 실시해 원인규명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 문제사항을 감사

계획에 반영하거나 별도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감사원은 또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서민주택 자금지원시책' 등 17개 과제 ▲2006년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20개 과제 ▲2007년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 등 10개 과제 등 모두 47개 과제에 대해 별도점검 사항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채사로,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사실상 총성맹세를 통해 대통령 공약 추진 단으로 전락했다는 반증"이라며 "감사원이 독립기관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사 임용시험의 합격 파트너 — <http://www.naeyoung.com>

국내영교육학

교육학 | 관내영 | 전공국어 | 최병해 | 국어교육론 | 마운용 | 전공수학 | 임대성 | 유아교육 | 임미선 | 초등교육 | 위재권
일반사회 | 김형수 | 전공미술 | 김성희 | 전공체육 | 김용호 | 전공생물(교육론) | 강치욱교수팀 | 전공물리 | 장영민

얼마남지 않은 2009학년도 교사임용시험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1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09학년도 임용시험 합격기원!!!!

매년 교사임용시험에서 **국내영교육학**의 축적된 노하우가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10월 실전 모의고사 해설특강 4회

▶ 선착순 300명모집(조기따입유의) ▶ 대상 : 2009학년도 임용시험 준비생 누구나 가능 (해설특강은 인터넷으로 제공되지 않음)

1, 2, 3 학년 재학생을 위한 **국내영 교육학 이론 선행학습반 특설(영상)**

▶ 최유방학이 되기 전에 선행학습을 시작하시면 바뀐 임용시험제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개강 : 11월 1일 (수강료 대폭 할인)

▶ 교원임용 공개설명회(금, 10시, 3시, 7시) 바뀐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수험계획 상담 ▶ 등락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원문 전화 주십시오.

국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신안 사거리) www.eduview.net

새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세 위업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3일 (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퀴 무료** 선착순 60명

처음 시작하신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연)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로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화정1단지,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주부반 · 성인반 (주간반, 야간반)

직업인을 위한 교육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개강일정 제공 **본원** ☎ 227-8003 전담여고 맞은편 3F **점유권** ☎ 971-0002 (구비미로 합동빌딩 동문출구 4F)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 **직통** 행정안전부 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전호지방술

●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 합격설명회, 매일 09~19시까지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11월 1일(주·야간반모집) (현재예약접수중)

● 6개월 : 90만원 (교재17만원포함) ● 주·야간반+기초(英·國) 무료특강 ※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인초교 후문) ☎ 222-4560 www.mdgosl.co.kr